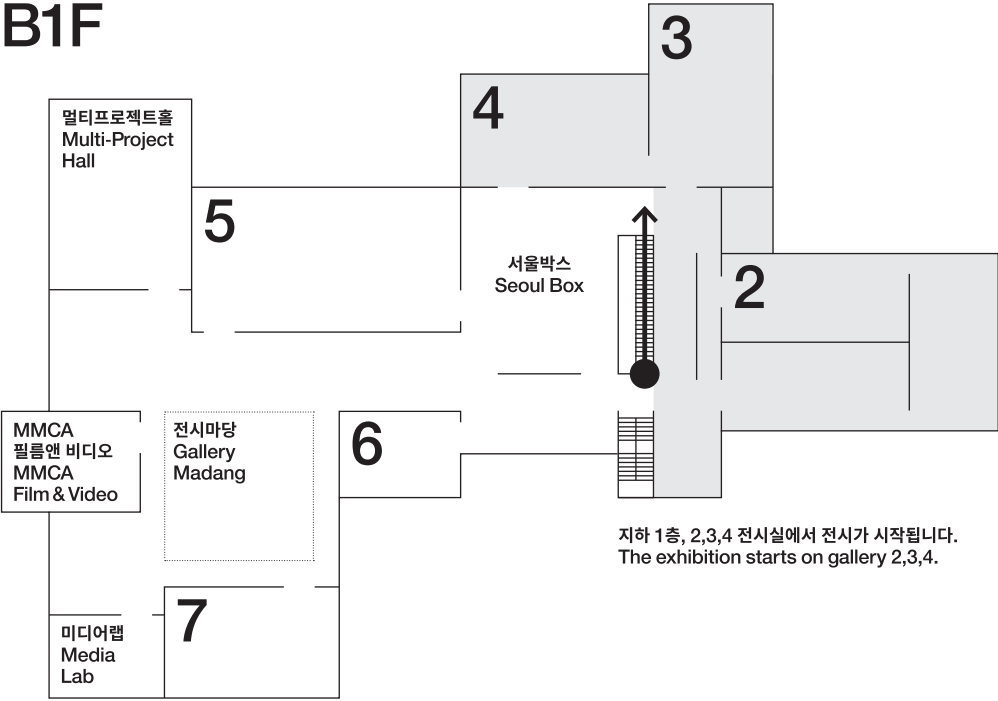


# 올해의 작가상 2023



# B1F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시해설을 들어보세요.  
Scan QR code to listen exhibition  
audio guide.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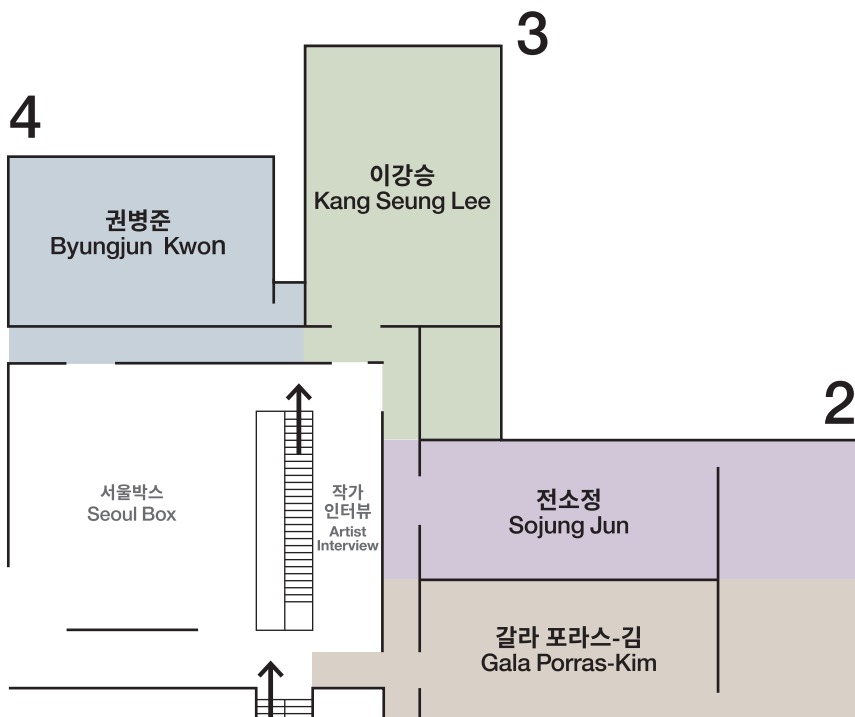
English

## <올해의 작가상> 제도 변화의 소개

## Changes in the <Korea Artist Prize> Program

2012년 시작한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요 연례 전시이자 동시대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수상제도이다. 전도유망한 주요 중견작가들의 전시와 수상,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 온 본 수상제도는 지난 2022년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작가들의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후원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작가의 신작 커미션 뿐만 아니라, 이전 중요 작업들을 전시에 함께 출품함으로써, 전시 기획을 강화하고, 작가의 주제의식과 예술세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심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심사의 방식을 과감히 변화시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들이 선정된 작가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였다. 2024년 2월 진행될 심사위원-작가간 대화를 통하여, 올해의 작가상이 단순한 수상제도가 아니라 한국 동시대 미술과 국제적인 미술계가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 미술관을 찾는 대중들이 동시대 미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aunched in 2012, the Korea Artist Prize is a noteworthy annual exhibition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and a major award program that recognizes achievements in Korea's contemporary art scene. For more than a decade, the award program has been highlighting the possibilities and vision of contemporary Korean art through exhibitions, awards, and continuous sponsorship for promising mid-career artists, and the MMCA made major improvements to this program for its tenth anniversary in 2022. To begin, we strengthened production support for artists and expanded the scale of sponsorship. In addition, by exhibiting not only newly commissioned works but also previous major works created by the award nominee artists, we strengthened our exhibition planning and deepened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artists' works and storytelling about their art worlds. Lastly, the final jury deliberation process has been radically transformed to now include the chance to have an internationally influential jury engage in open dialogue with the nominee artists. Through these newly added jury-artist dialogue opportunities, which will take place in February 2024, we hope that the Korea Artist Prize will not only serve as an award program but also as a venue where contemporary Korean art and the international art world can meet, and that the people who visit the museum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more actively engage with contemporary art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 올해의 작가상 2023

##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 기획 방향

새롭게 제도를 바꾸고 시작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정된 4명의 작가 (권병준, 갈라 포라스-김, 이강승, 전소정)의 신작뿐만 아니라 이전 작업들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다. 각 작가들은 신작을 통해 새로운 작업 세계를 선보이는 한편, 작가의 오랜 고민과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주요 작업들을 함께 전시한다. 이를 통해 전시는 신작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여정을 살펴보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작가의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2023년 선정 작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며 변화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제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질문과 답을 던지며 동시다발적인 평행우주를 만들어낸다.

«올해의 작가상 2023»에 출품된 권병준, 갈라 포라스-김, 이강승, 전소정의 작업은 현재의 시점에서 인간문명과 역사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적 기준에 대하여 질문한다. 무엇이 인간과 비인간, 이웃과 타자,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가? 그 구분은 가능한 것인가? 현대의 우리를 인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근대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배타와 구분, 규율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쌓아온 인간의 역사는 과연 인간이라는 종족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예술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에게 대해, 혹은 인간의 문명과

역사의 흐름의 방향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작가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과 제도, 관습과 터부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모순과 허점을 밝혀내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이 질문을 갖는 지점들과 제시하는 대안이 다양한 만큼, 전시가 열어주는 생각의 층위 또한 다양하게 진행된다.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명의 역사,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제도의 뿌리와 작동방식,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 이들의 작업세계는 동시대 미술이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철학적, 실천적인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Curatorial Direction for the *Korea Artist Prize 2023* Exhibition**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newly reorganized *Korea Artist Prize 2023* exhibition is the presentation of new works as well as previous works by the four nominee artists (Byungjun Kwon, Gala Porras-Kim, Kang Seung Lee, and Sojung Jun). Each artist will showcase their new art world through new works, while also exhibiting previous major works that contain the artist's long-standing concerns and thematic consciousness. In this way, the exhibition is organized to explore the artists' journeys leading up to their new works an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ir complex and multi-layered artistic worlds. In particular, the 2023 nominees have all pursued the theme of posthumanism in one way or another,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nature and humans as well as between humans and other humans, with both of these relationships having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ur entry into a post-industrial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artists ask and answer questions in different ways, creating a veritable multiverse of coexisting parallel universes.

The works by Byungjun Kwon, Gala Porras-Kim, Kang Seung Lee, and Sojung Jun ask questions about the contextual criteria that allow human civilization and history to be established in the present moment, such as what underlies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a neighbor and the Other, and humans and nature? Is it even possible to make such distinctions? Where is the justification for rational modern institutions and systems that allow us to function as human beings in the modern world? Can our history, which has been accumulated amid exclusion, distinction, and disciplinary institutions and systems, really tell us the truth about ourselves as a species? These questions go beyond art to lead us to rethink any understanding we may have of ourselves as human beings at a fundamental level, and the direction that our civilization and history have been taking. The artists examine perceptions, institutions, customs, and taboos that are taken for granted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and try to reveal their contradictions and weaknesses, or propose new alternatives. As the questions they ask and the alternatives they propose vary, so do the layers of thought the exhibition opens up. Extending beyond the realm of art to questions about the history of civil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roots and workings of institutions, and the identity and possibilities of a community, the art worlds of these four exceptional artists symbolically show the philosophical and practical challenges that contemporary art continues to face.

갈라 포라스-김  
Gala Porras-Kim

전소정  
Sojung Jun

갈라 포라스-김과 전소정은 마치 인류학(인간학)을 공부하는 외계인과 같은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작가들의 질문은 특정 지역이나 국적, 인종, 정치사나 사회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문명을 구성하는 보편성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의식을 포괄한다.

긴 호흡으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갈라 포라스-김과 전소정이 사용하는 방법은 스타 트렉(Star Trek)의 프라임 디렉티브(Prime Directive)를 연상케 한다. 광속을 뛰어넘는 워프(Warp) 기술을 갖지 못한 문명과 첫번째 접촉(First Contact)을 하기 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행성의 궤도를 돌며 문명 전체의 명암을 조감하는 것이 이들의 책무이다.

Gala Porras-Kim and Sojung Jun ask universal, macro-level questions from an observer's perspective, almost as if they were aliens studying anthropology (humanics). Their questions are not focused on a specific region, nationality, race, political history, or social history, but instead encompass a critical mindset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oday's notion of universality, which seems to define humanity and civilization.

The method used by both Gala Porras-Kim and Sojung Jun is reminiscent of Star Trek's Prime Directive, in that they observe changes in human culture and civilization on a long-term basis. Before making first contact with a civilization that does not have the warp drive technology to go beyond the speed of light, it is their responsibility to cautiously approach and orbit the planet, gaining a bird's-eye-view of the entire civilization's light and shade.

이강승 Lee  
권병준 Kwon

강병준 Kwon  
이강승 Lee

이강승과 권병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문명의 기준에 개입하여 사회에서 추방되거나 잊혀진 역사를 탐구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거나, 도전적인 방식으로 실천을 모색한다. 이들의 작업은 공동체 안에서 가시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인간과 비인간, 이웃과 이방인, 난민과 정착민, 정상과 비정상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연결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지식과 사실적·경험적 인식을 생성해내고자 한다. 작가들이 택하는 방법론은 서로 다르지만,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강승의 이야기 발굴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권병준의 로봇을 이용한 인간 공동체의 무한확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직진하는 인간사회의 거센 흐름에 여러 복잡한 갈래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새로 파내는 물줄기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며,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희망이다.

Kang Seung Lee and Byungjun Kwon more actively deal with the subjects of human history and civilization, exploring histories that have been exiled or forgotten by society, seeking alternative perspectives at the micro level, and looking for practical ways to carry all of this out in a bold way. By exploring and connecting the intersections of humans and non-humans, neighbors and strangers, refugees and settlers, normal and abnormal—all of which are visibly and invisibly divided within communities—their work seeks to generate knowledge as well as factual and experiential perceptions that have never existed before. The artists' methodologies may be different, bu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touch on the simple and essential.

Kang Seung Lee's production of new knowledge through narrative excavation and Byungjun Kwon's infinite expansion of human communities using robots create multiple complex forks in the turbulent stream of human society that marches straight ahead without looking back. The new streams they dig up are stories of a new world that has yet to arrive, and a more active hope for future possibilities.

# 갈라 포라스-김

## Gala Porras-Kim

갈라 포라스-김은 LA와 런던을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컨텍스트가 언어학과 역사학, 보존의 영역에 있는 소리, 언어, 역사와 같은 무형의 유산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작가의 작업은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기관이나 제도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관습과 형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유물과 오브제가 그들이 위치한 장소의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갈라 포라스-김은 MUAC(멕시코시티), Kadist(파리), 아만트 재단(뉴욕), Gastworks(런던)과 CAMSTL(세인트루이스)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휘트니 비엔날레(2019)와 우랄 산업 비엔날레(2019), 광주 비엔날레(2021), 상 파울로 비엔날레(2021), 제주 비엔날레(2022-2023), 리버풀 비엔날레(2022-2023) 등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2019년 하버드 대학교 래드 클리프 연구소의 펠로우를 하였으며, 게티 리서치 센터(2022-2022)의 아트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또한, 예일 미술대학 조각 학과의 시니어 크리틱으로 재직하고 있다.

Gala Porras-Kim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and London. Her work is about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that influence how intangible things, such as sounds, language and history, have been framed through the fields of linguistics, history and conservation. The work considers the way institutions shape inherited codes and forms and conversely, how objects can shape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placed. She has had solo exhibitions at MUAC, Kadist, Amant Foundation, Gasworks, and CAMSTL and has been included in the Whitney Biennial (2019) and Ural Industrial Biennial (2019), and Gwangju and Sao Paulo Biennales (2021) Jeju and Liverpool Biennial (2022-2023). She was a Fellow at the Radcliff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at Harvard University (2019) and the artist-in-residence at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2020-2022), and she is a Senior Critic at Yale sculpture department.

1



2



갈라 포라스-김, <우리를 속박하는 장소로부터의 영원한 탈출>, 2022, 종이에 잉크, 마호가니 액자와 편지, 248×184×5cm, 29.7×21cm. 개인 소장.

Gala Porras-Kim, *A Terminal Escape from the Place That Binds Us*, 2022, ink on paper, mahogany frame and letter, 248×184×5cm, 29.7×21cm. Private collection.

갈라 포라스-김의 작업은 종교적 믿음이나 죽음과 같이 지나온 모든 문명이 관심을 갖고 흔적을 남긴 유물들에서 시작한다. 석관과 고인돌과 같이 삶과 죽음을 경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의 오브제들이 현대의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유산 등의 시스템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잃고, 예술작품이나 국보로 분류되어 수장고와 전시장에 전시되는 상황에서 작가는 물건을 만들고 숭배하던 고대인들의 뜻과 현대의 제도를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이나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한편, 관련 규정과 법을 모색하고, 고고학이나 역사학 등의 학술적인 자료들과 종교적 믿음, 민속적인 전통을 탐구하여 현재의 근대적(이성적) 제도가 과거의 전근대적(제의적) 제도를 차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작가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미술관 공기 중의 수증기와 같이 본래 자연의 일부이던 것들이 종교적 믿음과 문화적 제도의 일부가 되고,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 하였다가 다시 자연과 인위적 분류의 가운데에 애매하게 서서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을 관찰하여 전달한다. 영원 불멸하고 강건해 보이는 역사적 구조물도, 강력한 제도와 법도 지질학적 시간 속에 부식되고 역사적 과거와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고고학적 상상력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 범신론적 믿음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법과 제도, 학문의 분류 체계와 예술의 역할 등을 우주적인 시공간 위에 놓고 새롭게 재단한다.

갈라 포라스-김, <세월의 녹이 슬어가는 무게(가제)>, 2023, 종이에 납화법, 흑연과 색연필, 228.6×182.8(3)cm. 작가와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 소장.

Gala Porras-Kim, *The Weight of a Patina of Time*, 2023, graphite, color pencil and encaustic on paper, 228.6×182.8(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Commonwealth and Council, Los Angeles, Mexico City.

Gala Porras-Kim's work begins with artifacts that have left their mark on history, with the artist keenly interested in all past civilizations, including religious beliefs and death. As ancient objects created to revere life and death such as sarcophagi and dolmens lose their original function in the modern system of museums, galleries, and cultural heritage—and are now classified as works of art or national treasures, kept in storage, and displayed in exhibition halls—Porras-Kim strives to reconcile the will of ancient peoples who created and worshipped these objects with modern systems. To this end, she actively communicates with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and research institutes, seeks out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to these objects, and explores academic sources such as archaeology and history, as well as religious beliefs and folk traditions, to help modern (rational) systems borrow from pre-modern (ritual) systems of the past. Furthermore, Gala Porras-Kim observes and conveys how things that were originally part of nature, such as the dolmens—which are now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and water vapor in the air of museums, became part of religious beliefs and cultural institutions, a part of everyday life, and then stood the test of time, standing ambiguously in the middle of natural and manmade classifications. Historical structures that may appear to be eternal and robust, as well as powerful institutions and laws, corrode over geological time. What is more is that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historical past and changes in nature. Nevertheless, based on archaeological imagination, a universal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pantheistic beliefs, Porras-Kim judges the laws and institutions that form the basis of modern civilizati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cademic disciplines, and the role of art in a cosmic space-time in new ways.



전소정은 영상, 사운드, 조각, 설치, 퍼포먼스, 책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해 왔다. 개인전 «심경의 변화 As You Like It»(2010, 인사미술공간)와 «이면의 이면 The Other Side of the Other Side»(2012, 갤러리 팩토리)에서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개인들, 사건에 가려진 개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개인전 «폐허 Ruins»(2015, 두산갤러리)에서는 일상의 전문가들을 통해 예술하는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무렵부터 음악, 무용, 비평,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자들과 자신의 질문을 공유하고 감각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이동에 관한 사유를 담은 «키스 미 퀵 Kiss Me Quick»(2017, 송은아트스페이스), 동명의 이상의 시(詩)를 매개로 동시대의 속도감에 관한 «오 마가쟁 드 누보테 Au Magasin de Nouveautés»(2020, 아틀리에 에르메스)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빌라 바실리프-페르노리카 펠로우쉽,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송은미술대상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Sojung Jun has worked in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video, sound, sculpture,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books. In her solo exhibitions *As You Like It* (2010, Insa Art Space) and *The Other Side of the Other Side* (2012, Gallery Factory), she began to think deeply about how to bring out the stories of individuals who are obsessed with one thing or another, as well as those who are obscured by events, and in her solo exhibition *Ruins* (2015, Doosan Gallery) she questioned the attitude of making art through “everyday experts.” Since then, she has shared her questions with collaborator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music, dance, criticism, architecture, and literature, and actively sought to expand our senses, holding solo exhibitions such as *Kiss Me Quick* (2017, SongEun ArtSpace), a contemplation on movement, and *Au Magasin de Nouveautés* (2020, Atelier Hermès), which explores the contemporary sense of speed through the medium of the eponymous poem by Yi Sang. In the past, she has been awarded the Villa Vassiliev-Pernod Ricard Fellowship, the Hermes Foundation Missulsang, the Gwangju Biennale’s Noon Art Prize, and the SongEun Art Award’s Grand Prize.





전소정, <절망하고 탄생하라>, 2020,  
단채널 비디오, HD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24분 45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Sojung Jun, *Despair to be Reborn*, 2020,  
single-channel video, HD color, stereo sound,  
24min. 45sec. MMCA collection.

전소정은 끊임없이 동시대가 닫고 선 근대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놓아버린 바깥의 영역을 탐색하는 작가이다. 근대는 국가정체성과 합리성, 효율성, 빠른 속도와 자본의 세계화가 지배하는 시공간이다. 작업은 15세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유럽의 도시와 20세기 초의 도쿄와 경성 등 근대의 시공간을 제시하지만, 작가가 바라보는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근대화의 시공간에 온전히 속해 있기 보다 이를 넘나드는 경계의 것들이다. 이들은 때로는 광인의 모습으로, 도주자와 방랑자, 약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근대적 인간의 조건이 과연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종 도착점인지 질문한다. 한편, 근대는 문자와 숫자를 지배하는 시각적 감각이 쌓아 올린 빛나는 금자탑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읽기와 쓰기, 계산하기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촉각과 청각, 후각의 감각들이 전소정의 작업에서는 대안적인 소통과 이해의 도구로 등장한다. 이 감각들은 항상 인간의 일부로써 존재했지만 근대화의 과정에서 희미해진 잔영들이다. 작업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시각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리의 질감, 떨림과 진동, 냄새의 기억들이 인간과 역사의 서사를 잇는 임시통로를 구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작가는 역사 속의 시인과 예술작가, 무용수와 음악가를 호출하여 그들이 온몸으로 부딪힌 근대의 시간을 곱씹는다.

전소정, <싱크오프>, 2023,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29분 30초. 작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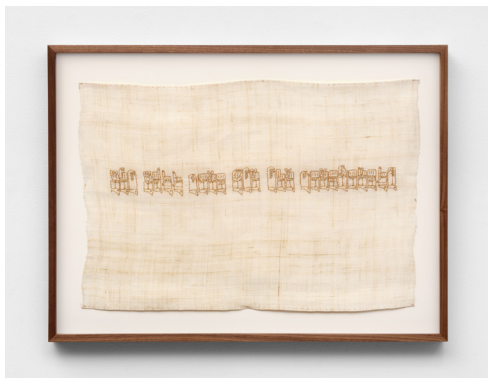
Sojung Jun, *Syncope*, 2023,  
single-channel 4K video, color, stereo sound,  
29min 30sec. Courtesy of the artist.

Sojung Jun is an artist who constantly explores the outer realm of modernity, which the contemporary era has constantly stepped on, as the realm has been abandoned by modernit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Modernity is a space-time dominated by national identity, rationality, efficiency, speed, an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lthough Jun's work presents modern space-time, such as European cities that began to develop in the fifteenth century, as well as Tokyo and Gyeongseong (Seoul)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characters and their stories are not entirely part of the space-time of modernization, but rather things on the border crossing it. They sometimes appear in the form of a madman, fugitive, wanderer, or the weak, and question whether the modern human condition is really the final destination for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modernity is also a shining golden achievement built by visual senses that are dominated by letters and numbers. Therefore, the senses of touch, hearing, and smell, which have been lost in the process of reading, writing, and calculating, emerge in Sojung Jun's work as alternative tools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These senses have always been a part of human beings, but they are remnants that have fad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Following the process of the artist's work, we can observe that not only visual data but also textures of sound, tremors and vibrations, and memories of smell build a temporary passage that connects human beings with the narratives of history. To do this, the artist calls upon poets, artists, dancers, and musicians from history to reflect on the modern times they have encountered using their whole bodies.

이강승은 LA와 서울을 기반으로 다학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초국가적인 퀴어 역사의 유산, 그 중에서도 퀴어 역사와 미술사가 교차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강승의 작업은 LA 해머 미술관(2023)을 비롯해 파리 팔레 드 도쿄 (2023), 암스테르담 드 아펠(2023), 뉴욕 휘트니 미술관(2022), 국립현대미술관(2020), 뉴욕 PARTICIPATION INC(2019) 등 여러 국제적인 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인 바 있다. 최근 LA 빈센트 프라이스 미술관(2023), 갤러리 현대(2021), 커먼 웰스 앤 카운슬(2021) 등에서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뉴욕 뉴 뮤지엄 트리엔날레(2021), 13회 광주 비엔날레(2021) 전시에도 참여하였다. 이강승의 작업은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LA 카운티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LA 게티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Kang Seung Lee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and Seoul. His work frequently engages the legacy of transnational queer histories, particularly as they intersect with art history. Le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including at Hammer Museum, Los Angeles (2023); Palais de Tokyo, Paris (2023), de Appel, Amsterdam (2023);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202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0); and PARTICIPANT INC, New York (2019). Recent solo exhibitions have been held at Vincent Price Art Museum, Los Angeles (2023); Gallery Hyundai, Seoul (2021); and Commonwealth and Council, Los Angeles (2021). He has also participated in New Museum Triennial, New York (2021), and 13th Gwangju Biennial, Gwangju (2021). Lee's work is in the collections of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os Angel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Getty, Los Angeles; among others.

1



2



1

이강승,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까>, 2022,  
삼베에 옐릭 24K 금실, 호두나무 액자, 약 38×57cm, 액자: 48×67×6cm.  
개인 소장.

Kang Seung Lee, *Who Will Care for Our Caretakers*, 2022,  
antique 24k gold thread on sambe, walnut frame, approx.  
38×57cm, framed: 48×67×6cm. Private collection.

2

이강승, <라자로(정다운, 네이슨 머큐리 킴과의 협업)>, 2023,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 52초. ed. 5, A.P. 2.  
작가와 커먼웰스 앤드 카운슬 소장.

Kang Seung Lee, *Lazarus*  
(*In Collaboration With Daeun Jung and Nathan Mercury Kim*), 2023,  
single-channel 4K video, color, sound, 7min. 52sec. ed. 5, A.P. 2.  
Courtesy of the artist and Commonwealth and Council,  
Los Angeles, Mexico City.

이강승에게 역사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연결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은 “돌보다”이다. 그의 “돌보다”는 단순한 도움이나 호의를 뜻하지 않는다. 돌보아 주는 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 간의 깊은 이해와 연결이 전제 되어있다. 작가의 “돌보는 행위”는 보이지 않던 자료들과 물건들을 발굴하고, 시대와 국경, 인종과 성별을 넘어 이들을 연결하여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산실의 역할을 한다. 그의 작업의 쿼어 역사 아카이브들은 서로 돌보아주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것들이며, 작가는 소중한 아카이브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노동과 수고를 들여 이들을 미술작품이자 미술사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하던 쿼어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은 미술작품이 된 아카이브를 통하여 비로소 서로 마주보고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들이 남긴 오브제와 파편들은 물건들의 알레고리를 통하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상징하던 플랑드르의 정물화처럼 굳건히 버티고 선 현재의 소멸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기에 이강승의 작업에서 언어와 오브제는 남아있지만 이를 입고, 만지고, 사용하던 인간의 육체는 아슬라히 흔적만 남는다. 인간의 몸과, 그 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규범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도 “돌보다”는 살아남아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승할 것이다.

For Kang Seung Lee, “care”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history can be reorganized, as it allows people to better and more clearly understand each other. For him, “care” does not mean merely helping or doing people favors. It presupposes a deep understanding and connection between the caregiver and the care recipient. Lee’s “act of caring” serves as a cradle for excavating invisible materials and objects, connecting them across time periods and borders, as well as race and gender, and creating new stories.

In the case of Kang Seung Lee specifically, the queer history archives in his work are collected from different people in the community who cared for each other, something the artist painstakingly—and for a great length of time—transformed into artworks and part of art history based on precious archival materials. Queer artists and activists who were active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can only come face to face with each other and start writing new histories through archives that have become artworks. On the other hand, the objects and fragments they left behind through the allegory of objects remind us of the disappearance of the present, standing firm like the Flemish still life paintings that symbolized memento mori (remember you must die). Thus, in Kang Seung Lee’s work, language and objects remain, but the human bodies that wore, touched, and used language and these objects leave only vague traces behind. Even in the place where the human body and the norms of the society that particular body belonged disappears, “care” will survive and pass on those stories to future generations from that particular community.

# 권병준 Byungjun Kwon

권병준은 1990년대 초반 싱어송 라이터로 음악 경력을 시작하였고, 얼터너티브 록에서부터 미니멀 하우스를 포괄하는 6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영화 사운드 트랙, 패션쇼,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2005년부터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실험적인 전자악기 연구개발기관인 스타임(STEIM)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1년 귀국하여 현재까지 소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연구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악기, 무대장치를 개발, 활용하여 극적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음악, 연극, 미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 연출하고 있다. 엠비소닉 기술을 활용한 입체음향이 적용된 소리기록과 전시공간 안에서의 재현 관련 기술 개발에 선두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로봇을 이용한 기계적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Byungjun Kwon started his musical career as a singer-songwriter in the early 1990s, and released six albums covering the minimalist house from Alternative Rock. Since 2000, he has demonstrated his musical talents in various cultural fields such as movie soundtracks, fashion shows, dance, theater,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2008, he has been a hardware engineer at STEIM, an experimental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 based in the Netherlands. After returning to Korea in 2011, he has been active as a hardware researcher related to sound to date, and has developed and utilized new musical instruments and stage devices to produce dramatic ‘scenes,’ creating and directing new media performances that encompass music, theater, and art. He is a leading player in multi-channel sound installation using Ambisonic technology and now directing robotic mechanical theater.

1



2



권병준, <수증기 스크린, 외나무다리, 전열기 조명>, 2014,  
수증기 스크린: PVC 파이프, 주름관, 모터, 초음파 진동자, 외나무다리: 비계 구조물,  
전열기 조명: 전열기 조명(5), 나무, 가변 크기, 100×500×120, 170×50×170cm(5).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 퍼포먼스 영상 스틸. 작가 소장.  
Byungjun Kwon, *Fog Screen, Single Bridge, Electric Heater Lighting*, 2014,  
fog screen: PVC pipe, corrugated pipe, motor, ultrasonic transducer,  
single line bridge: scaffolding, heater lighting: heater lights(5), wood,  
dimensions variable, 100×500×120cm, 170×50×170cm(5). Still from the  
performance ‘Another Moon, Another Life’. Courtesy of the artist.

권병준은 사운드 작업과 퍼포먼스 연출을 통하여 공동체 속의 인간의 연대와 확장 가능성에 관한 실험을 해 온 작가이다. 주로 전시가 아닌 공연과 퍼포먼스, 사운드 경험 등으로 마주할 수 있었던 그의 작업은 로봇의 등장과 함께 종합적인 극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작가는 사운드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소리를 듣는 경험이 타인을 이해하고, 낯선 이들 간의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이주민들의 낯선 노래들과, 풍경의 향, 지나간 시대의 변화가 사운드 하드웨어에 담겨 전시장에서 제공되면, 이 청각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잠시나마 공감과 연대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더 나아가 작가는 인간을 닮은 비-인간의 상징인 로봇을 파트너로 삼아 이 비투방울과 같이 투명하고 아름답지만 찰나적인 공동체가 이웃과 타인의 구분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인간 공동체의 궁극적인 한계를 시험한다. 극 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일어서고, 앉고, 명상을 하고, 예의를 표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하도록 설계된 이들이며, 쓸모와 효용을 위해 디자인된 산업용 로봇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쓸모가 없어도 되는 로봇의 등장은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를 잃은 인간 노동자들을 씁쓸한 마음으로 떠올리게 한다. 우리를 낯설게 닮은 그들을 바라보며 관람객들은 경쟁자이자 협력자, 혹은 대체자로서 로봇은 이미 사회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인간 노동자들과 함께 실패한 연대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작가가 크지슈토프 보디츠코(Krzysztof Wodiczko)와의 대화에서 인용하였듯이, “우리는 결국 모두 이방인일 뿐이며 (We Are All Strangers)” 오로지 이방인으로서만 함께 할 수 있을 뿐이다.

권병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로봇>, 2023,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작가 소장.  
Byungjun Kwon, *Robot Crossing a Single Line Bridge*, 202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Byungjun Kwon is an artist who has been experimenting with the possibility of human solidarity and expansion in communities through sound works and performance directing. His work, which is most often encountered as performances and sound experiences rather than exhibitions, 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manifestation of the theater with the advent of robots. Using the medium of sound, the artist has been thinking a lot about how the experience of listening to sound can help us understand others and create solidarity between strangers. When the unfamiliar songs of migrants, the scents of landscapes, and the changes of bygone eras are captured by sound hardware and presented in an exhibition, a community of empathy and solidarity is created among those who share this auditory experience, at least for a short moment in time. Furthermore, the artist partners with robots—symbols of the non-human that resemble humans—to test the ultimate limits of human communities, like whether a transparent, beautiful but fleeting community such as this soap bubble can extend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neighbors and strangers, to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The robots in his play are designed to stand, sit, meditate, act politely, reach out to people, and spend time with them, which is a far cry from industrial robots, which are designed to be nothing more than useful and efficient. The emergence of robots that are allowed to be useless is a bitter reminder of the human workers whose labor has been devalued by the rise of robots. Gazing at their uncanny resemblance to us, the viewer will realize that robots, as competitors, collaborators, or replacements, have already formed a community of failed solidarity with human workers who are already becoming strangers in society. As the artist quotes from a conversation with Krzysztof Wodiczko, “We are all strangers” and only as strangers can we be together.



## 교육 프로그램: 전시를 말하다

### 작가에게 보내는 나의 질문

작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온·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

참여방법

온라인: QR코드 스캔

오프라인: 작가 인터뷰 공간에서 질문 작성

\*선별된 질문은 작가의 답변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SNS 및 작가 인터뷰 공간에 게시될 예정

온라인 QR코드



## Education Program: Discuss the Exhibition

### Q&A with Artists

Join the online and offline Q&A program with the artists

To participate

Online: Scan the QR code

Offline: Write your questions for each artist in the artist interview section

\*Selected questions and artists' answers will be posted on MMCA's social media and artist interview section

Online QRcode



###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입장료

개별권 2,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오후 6시-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30분  
시간당 4,200원

### 공동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SBS 문화재단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2,000won  
Every Wed & Sat 18:00-21:00: Free  
Under 24 or over 65: Free

### Parking

Daily Hours: 08:00-22:30  
4,200won per hour

### Co-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BS Foundation

### National Museum of

###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http://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https://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https://facebook.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https://instagram.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https://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https://tv.naver.com/mmca)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BS 문화재단  
Foundation